

광주예총 회장 선거방식 바꿔라

유권자 수 확대 대표성 강화...정책발표·토론회 늘려야

제 7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가 지난 19일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노출,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 약해지고 주민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표가 아쉬운 선거 막바지의 경우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정책이나 인물 필립이보다 급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도 충분히 '급진 선거'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완벽한 비례대표제는 아니더라도 표에 차등을 주는 변형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 열악...자생력 확보 최선”

최규철 신임 예총회장



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회원들 뿐 아니라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제

“외부에서 보기에 예총이 거대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이 열악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총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된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최 회장은 광주민예총과도 화합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논의 과정에서 민예총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는 데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며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백두 영봉의 서설”

백두 영봉에서 한라산까지

서양화가 김준호 개인전 31일까지 대동갤러리

서양화가 김준호씨가 오는 31일까지 대동 갤러리에서 '백두영봉에서 한라산까지'를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한 100여 이상 대작 17점을 선보인다.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뒤 제13회 한국미협전 특별상, 목우회 공모전 목우회 회장을 받았으며 광주시 미술사에서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명산을 스케치한 1000호 짜리 두점씩 포

배상운 씨 등 의재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재미술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가 선정됐다.

의재창작스튜디오는 21일 권승찬, 박진호(이상 멀티미디어), 한성필(사진), 배상운(한국화), 허욱(회화, 설치)씨 등 국내작가 5명을 2차 입주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hia·말레이시아·회화), 바주라차트라 데렌드라(Bajracharya Deependra·네팔·사진)씨 등 7명을 선발했다.

참여 작가들은 오는 3월부터 의재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뒤 3개월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지역 작가들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등 작업에 참가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정혜진씨 세번째 동화집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 정혜진(56·1991년 동화 당선)씨가 '해바라기의 꿈'(1993년) 이후 세번째 동화집을 출간했다.

“날아라 우주선”(아동문예 펴냄)에는 표제작을 비롯해 ‘팽이갈매기의 우정’, ‘별따루 작전’, ‘만연산 호랑이’ 등 10편의 동화가 정성희씨의 삽화와 함께 실려있다.

재지중인 저자는 지난 해 말 (재)장원문화재단(이사장 이원도)이 광주·전남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에게 수여하는 '제2회 장원사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정필기자 camus@kwangju.co.kr

비엔날레 개혁은 이사회부터

광주비엔날레가 명예회복에 나섰다.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조직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최근 인력과 예산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재단은 예술 총감독을 예년보다 빠른 오는 4월경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총감독 선임이 늦어져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2008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선 오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단 이사회의 선출직 이사구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재단은 임기만료된 선출직 이사진임을 미루는 바람에 단원직 이사들만이 참여하는 '반쪽 이사회'에서 예술 총감독선임과 같은 비엔날레의 주요현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빚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이사진을 명망가 중심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꾸리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비엔날레 재단 이사진은 총 25명. 이 가운데 디자인 비엔날레와 관련된 선출직 이사 5명을 제외하면, 광주비엔날레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사들은 19명이다.

무엇보다 편중된 인적 구성은 재단 이사진과 미술계가 후보를 추천하는 대형 예술 총감독 공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사회 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후보군이 제한돼 중량감 있는 인물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

김민호기자 jhpark@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other titles at m-o-v-i-e-s.

Movie advertisement for Mega Box featuring various titles like '2관 마피도2' and '3관 마피도2'.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네' (Anne of the Yellow Sea).

Movie advertisement for '엔터 시네마' featuring titles like '1관 허브' and '2관 목표'.

Movie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 시네마' featuring titles like '1관 허브' and '2관 데지뷰'.

Movie advertisement for '에라곤' (Eragon) and other tit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인애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various property listings.